

육아지원 내실화 (후쿠이현)



■ 사업 배경

2

필요성①

2014년 후쿠이현이 실시한 「결혼·육아에 관한 요구 조사」에 따르면,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식 수(3명)보다 실제로 키우고 싶은 자식 수(2명)가 적으며, 그 이유로 육아 비용이 든다는 대답이 70% 이상을 차지

필요성②

2010년 일본 국세조사에 따르면, 후쿠이현은 여성 취업률(50.9%) 및 맞벌이 세대를(56.8%) 모두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, 일-육아 양립을 비롯한 육아 환경 및 육아 지원 사업이 필요

필요성③

2013년 후쿠이현 근로자 취업환경 기초조사에 따르면, 남성의 육아휴직 취득률은 1.7%에 그쳐, 남성도 육아를 분담하거나 조부모가 손자를 키우는 등, 온 가족이 다 함께 육아를 돕는 환경 만들기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

■ 사업 개요 (4개의 축)

3

- ① 결혼지원 내실화
- ② 일-육아 양립 지원 추진
- ③ 지역의 육아지원 확충
- ④ 육아와 관련된 경제적 지원 확대

■ 사업 개요 (주된 사업)

4

▶ 신 후쿠이 세 아이 응원 프로젝트 (현·시정)

아이가 3명 이상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, 18세 미만의 아이가 3명 이상 있는 세대를 대상으로, 셋째 이후의 아이가 초등학교 취학전까지, **보육소의 보육료(유치원 포함), 일시보육·병아보육 이용료를 무료화(2006년도~)**

⇒ **필요성①** 에 대응

▶ 0세아 육아휴직 응원기업 장려금 (현)

아이가 1살이 되기 전에 육아휴직을 취득한 경우(과거 3년 이내에 해당자가 없는 것이 조건), **기업에게 장려금(20만엔)을 지급**

⇒ **필요성②** 에 대응

■ 사업 개요 (주된 사업)

5

▶ 후쿠이의 아이 응원 급부금 (현)

단시간 근무(윗아이가 3살이 되기까지의 기간)를 이용하면서 다음 아이를 출산, 아이가 1살이 되기 전까지 육아휴직을 취득할 경우, **풀타임 근무시의 육아휴직 급부금과의 차액을 지급**

⇒ **필요성②** 에 대응

▶ 부친·조부모의 육아휴직 등 취득촉진 장려금 (현)

종업원(부친, 조부모)이 육아를 위한 휴가를 10일 이상 취득할 경우, **기업에게 장려금10만엔을 지급**

⇒ **필요성③** 에 대응

■ 특징 · 선진성

6

- ✓ 후쿠이 세 아이 응원 프로젝트는 2006년도부터 전국에 앞서 실시되고 있으며, 2015년도부터 다자(多子)세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더욱 확대하는 등, 일본 전국의 저출산 대책을 선도하고 있다.
- ✓ 각종 장려금을 이용해 아이가 1살이 되기전까지는 육아휴직을 취득해 가정에서 육아를, 1~2살의 기간은 단시간 근무를 이용한 일-육아 양립을 지원하는 등, 라이프 스테이지마다 육아세대가 직면하는 상황에 맞게 다양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망라적이면서 세밀한 지원을 실시.

■ 사업 효과

7

<실적>

- ✓ **합계특수출생률이 상승**
1.50 (2005년) → **1.60** (2013년)
- ✓ **제3자 이상의 출생비율이 상승**
15.4% (2005년) → **18.0%** (2013년)

<목표>

- ✓ **아이가 있는 세대 중 세 아이 세대의 비율(35~39세) 상승**
23.6% (2013년) → **30%** (2019년)
- ✓ **부친의 육아휴직 취득률 상승**
1.7% (2013년) → **5%** (2019년)
- ✓ **남성의 육아시간(1일당) 증가**
45분(2013년) → **60분** (2019년)
- ✓ **아이가 1살이 되기전까지 육아휴직 취득 비율 상승**

■ 과제 · 문제점

8

- ▶ 신 후쿠이 세 아이 응원 프로젝트 사업 실시에 있어서는, 시 및 정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며, 조정이 필요
- ▶ 2015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됨으로 사업 진행 상황을 평가하면서 꾸준히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